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모임 회의록

1. 개요

주 제	8차 회의		
일 시	2025. 12. 10.(수) 19:30~20:00	장 소	온라인
참석자	노민호, 이정민, 윤태진		
회의 주요내용 (요약)	- 12월 행사 미션 관련 논의 - 네트워크 위원들 간 근황 공유		

2. 협의/결정사항

항목	결정사항	담당자	일정
	이정민 분과원님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어 12월 네트워크 교류회에서 발표 예정		

3. 요청사항(도 담당부서 등)

-
-

4. 주요 발언 내용

발언자	발언내용
노민호	<p>저도 9월 행사 이후에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소통하며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9월 이후 행사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11월 포럼 미션은 있었지만 평일이라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p> <p>이번 12월 20일에 하는 네트워크 행사는 경남 남해에서 진행이 되고 중간에 창원, 진주 등 집결해서 운영을 합니다. 활동이 9월달에 마무리되어 25년 네트워크가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네트워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모임지기 역할을 맡으면서 그동안 제가 속했던 분과에서 부조리하게 흘러갔던 일들을 겪어오며 활동하면서 상처가 많았고 이번엔 제가 맡아서 투명성 있는 모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정민 분과 원님이 원활하게 잘 진행하였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저 또한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p>
이정민	<p>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모임지기님이 운영을 잘 해주셔서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미션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기관에 사정은 있었지만 몇 가지 미션들은 아쉽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것이 채택이 되어서 남해에 방문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모임지기님이 회의날짜나 투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윤태진	<p>퇴근하고 일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활동진행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흘러가 아무리 자율적인 주도활동이라 해도 개입을 하거나 도에서 주최를 해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좋게 말해서 자율 나쁘게 말해서 방치하는 느낌입니다. 12월 20일 남해군에서 한다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쉽다.</p>
회의사진	



모임지기

노민호

(서명)